

02. 근대 이전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

2

고려의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



이 그림은 고려 시대에 그려진 <미륵하생경변상도>의 일부야. 그림을 자세히 보면 농부들이 소를 이용해 밭갈이를 하고, 벼를 베어 도리깨로 타작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어. 고려 시대에는 농업이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던 것 같아.

농업 진흥을 위해 고려는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을까?



오늘 수업을 배우면



전시과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취 체제를 비롯한
고려 시대 경제생활을 말할 수 있다.

◎ 전시과 시행과 녹봉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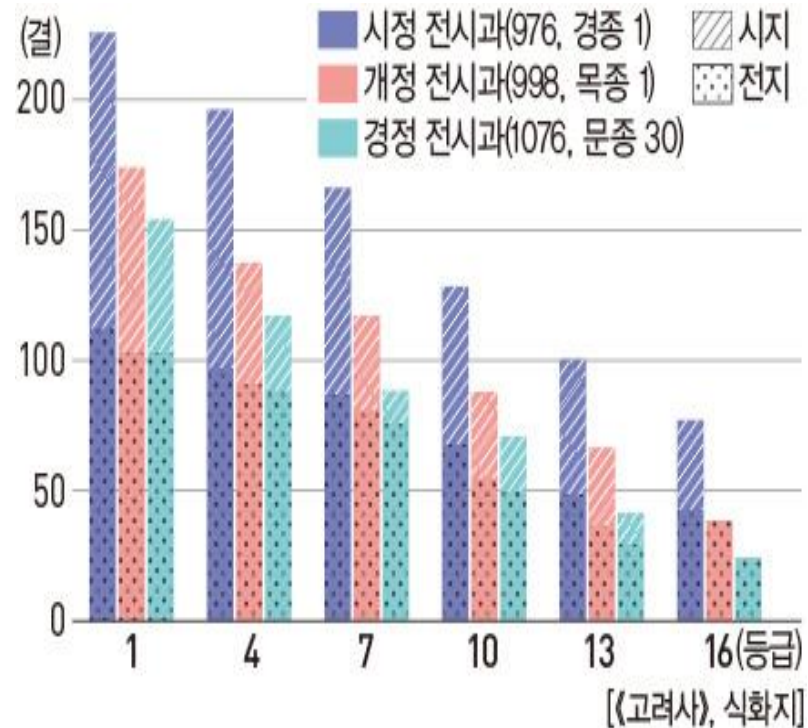
(1) 역분전: 고려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지급

★★ (2) 전시과: 통치 체제 정비와 함께 시행

대상	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
내용	일정한 토지(전지, 시지)를 대상으로 수조권 행사
특징	원칙적으로 수조권 세습 불가, 사망 또는 은퇴 후 직역을 수행하지 못하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
폐단	전시과 토지의 세습 경향이 강해짐, 국가에서 수조권을 지급할 토지 양 감소 → 전민변정 사업 등 개혁 시도(불법 차지 토지, 강제 노비 → 양인 신분)

(3) 녹봉 지급: 관직 복무의 대가로 등급에 따라 곡식 등 지급

◎ 전시과 시행과 녹봉 지급



전시과 개정에 따른 등급별 지급 액수 변화

처음에는 **관품**뿐만 아니라 **인품** 등을 반영해 지급했으나, 시간이 지나 **관직**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18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다.

◎ 수취 체제 정비

(1) 수취 체제 정비: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 목적

종류	기준	내용
조세	토지	토지에 부과, 생산된 곡물의 1/10 징수 전시과에 속한 토지는 수조권을 가진 개인이 직접 거둠
공물	호	집집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 징수
역	16~59세 정남	성인 남성(16~59세)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역, 국가의 토목 공사에 동원되는 요역

(2) 조운: 조세 등으로 거둔 곡식을 조창에 집결한 후 배를 이용해 수도(개경)로 운송

◎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

(1) 정부의 노력: 새로 개간한 경작지에 세금 감면, 수리 시설 확충

(2) 농업 기술의 발전: 농기구와 종자의 개량, 깊이갈이의 일반화, 시비법의 발전 등

→ 매년 경작 가능 토지 증가

고려 후기 모내기법이 남부 지방에 일부 도입됨

◎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

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

현종 14년 “무릇 여러 주현의 의창 법은 도전정의 수에 따라 거두어들인다.

혹 흉년이 되어 백성이 굶주리거든 이것으로써 급한 것을 구하고 가을에 이르러 환납하도록 하되 헛되이 소비하지 말라.”라고 했다.

- 《고려사》 -

도움말 : 의창과 같은 구휼 기관에서는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갚도록 했다.

◎ 상업과 수공업 발전

(1) 상업

- ① 개경에 **시전**(국영 상설 점포) 설치, **경시서**(상업 행위 감독) 운영
- ② 철전, 동전, 은병(활구) 등의 화폐 발행 → 고려 후기에는 원의 지폐 도입

(2) 수공업: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 중심으로 발전

관청 수공업	공장안에 등록된 수공업자가 국가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생산
소 수공업	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금·은·종이·먹 등의 수공업 제품 생산해 국가에 공물로 공급

- 민간에서는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중심이 됨

◎ 상업과 수공업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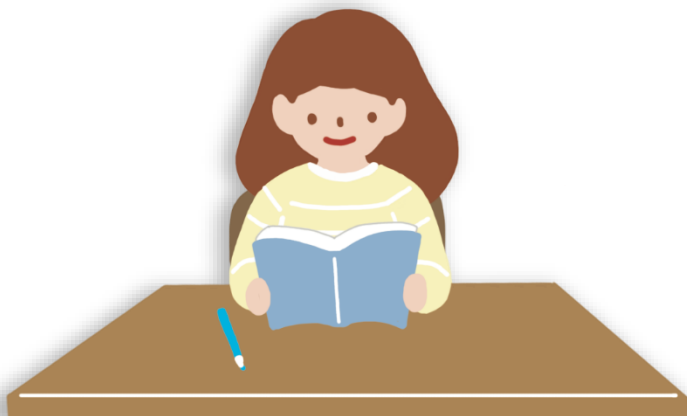
(3) 불교 사원 경제의 발전: 불교 행사에 필요한 물품 생산(사원 수공업)

→ 물품의 매매와 유통 활발

고려 농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모습

다음은 고려 후기에 쓰인 한시로, 농민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 준다.

당시 농민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자.



고려 농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모습

상률가: 도톨밤의 노래

윤여형

내 촌집에 들러 늙은 농부에게 물으니 늙은 농부 나를 보고 자세히 얘기한다. 요사이 세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산이며 내로써 한계 지어 공문서 만들었고 혹은 토지에 주인이 많아서 조세를 받은 뒤 또 받아가기 쉴 새 없소. 혹은 홍수와 가뭄을

당해 흉작일 때에는 해묵은 타작마당엔 풀만 엉성하다. 살을 굶고 뼈를 쳐도 아무것도 없으니 국가의 조세는 어떻게 낼꼬. 몇천 명 장정은 흩어져 나가고 늙은이와 약한 사람만 남아서 거꾸로 달린 종처럼 빈집을 지키누나. 차마 몸을 시궁창에 박고 죽을 수 없어 마을을 비우고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는다.

- 서거정, 《동문선》 -

역사로

탐구해 보자!

고려 농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모습

활동
1

시를 읽고, 당시 농민의 삶이 고단했던 이유를 찾아보자.

✓ 예시 답안

역사로

탐구해 보자!

고려 농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모습

활동
1

시를 읽고, 당시 농민의 삶이 고단했던 이유를 찾아보자.

- 세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았다.
- 토지에 주인이 많아서 조세를 받은 후 또 받아 갔다.
- 홍수와 가뭄을 당해 흉작을 겪었다.

✓ 예시 답안

역사로

탐구해 보자!

고려 농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모습

활동
2

시의 내용을 참고해 고려 시대 농민의 삶을 주제로 가상의 랩 가사를 만들어 보자.

어제는 한 달 만에 비가 왔어/ 너무 많이 와서 논밭이 잠겼어/ 한 달 내내 가뭄 걱정 많았는데/ 이제는 홍수 걱정해야 할판이야/ 올해 농사 가뭄 홍수로 물거품 될 판인데/ 세금 걷어가는 땅 주인은/ 왜 매일 얼굴이 바뀌는가/ 십 분의 일이 아니라 십 분의 칠 팔을 거두어 가면/ 내 친구 그리했듯 도망하거나/ 대갓택에 몸 맡기는 것이 더 살기 편하리

✓ 예시 답안



다음 시간에는

Ⅱ-02-3 조선 전기의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

단원을 배웁니다.

